민심의 목소리

평 양 출 판 사
주체110(2021)년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이 지속되고있으며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초래되는 불안정한 정세는 겨레의 생존과 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반통일분자들, 전쟁광신자들이 기승을 부릴수록, 또 그 행태가 지속될수록 이 땅우에 기어이 평화와 통일을 안아오고야말 우리 겨레의 의지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반대하여, 전쟁을 반대하여 남조선에서 줄기차게 벌어지는 각계층의 완강한 투쟁은 분렬민족의 일원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자신인것처럼 민족의 운명도 민족자신이 주인이 되여 자체의 힘으로 지키고 개척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력사의 진리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

이것은 민족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의 근원을 기어이 끝장내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밝은 앞날을 개척해나가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 반영된 웨침이다.

민족운명의 주인은 그 민족자신이며 민족운명개척의 길을 열어나갈 힘도 그 민족자

신에게 있다.

민족자주의 정신은 민족을 강하게 만들지만 외세의존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망치는 길이다.

이것은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험난한 투쟁속에서 우리 겨레가 찾은 진리이다.

우리 민족의 오랜 분렬사는 외세에게 기대를 걸고 의존하려 하는것이야말로 자기 운명을 남에게 내여맡기는 머저리짓이고 쓸개빠진 사대매국행위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돌이켜보면 사대매국과 외세의존은 력대 남조선보수패당의 체질화된 본태이고 고질화된 악습이며 유일한 생존방식이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제를 대신하여 1945년 9월 8일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가 친미주구 리승만을 내세워 조작해낸

《단독정부》는 조작될 당시 립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요직은 물론 군부까지 거의 모두가 항일유격대와 반일독립군을 악착스럽게 《토벌》하는데 앞장섰던 친일주구들이 주역을 이루었었다.

이런 《정권》이 미군정청의 식민지정책수행의 도구로 충실히 복무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였다.

남조선의 수구보수세력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 남조선미국《전시지원협정》, 남조선미국《상호방위조약》, 《작전지휘권이양에 관한 각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들을 통하여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적리권을 미국에 완전히 섬겨바치였으며 그 대가로 권력을 대물림해왔다.

사대와 외세추종을 밥먹듯 하며 보수세력은 정치적잔명을 부지해왔다.

오늘날 사대와 외세의존은 쩌들대로 쩌

든 남조선정치의 생리적특성, 정치풍토로 되고말았다.

민족적존엄을 외세에게 마구 내맡기고 제정신없이 갈대처럼 흔들거려온 력대 보수패당의 친미사대와 아부굴종속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분렬의 고통과 함께 식민지노예의 수치를 당하여왔다.

민족문제해결에서 자주적인 립장과 자세를 가지지 못하면 자기 민족의 힘과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되며 오히려 외세의 침략적목적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희생당하게 된다.

보수패당의 체질화된 사대굴종적악습, 남만 쳐다보는 습관된 외세구걸놀음은 지난 수십여년동안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키였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며 망국의 길이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리익을 외세

에 섬겨바치며 동족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는 사대매국의 무리들을 단호히 징벌해왔다.

1960년의 4월인민봉기를 통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친미주구 리승만을 하와이로 쫓아내였다. 미국이 18년이나 써먹던 주구 박정희를 서슴없이 제거하고 전두환《신군부정권》을 조작해냈을 때에도 남조선인민들은 광주인민봉기를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도당의 통치지반을 크게 뒤흔들어놓았고 친미사대주구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1987년 6월항쟁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군사파쑈독재를 굴복시키고 《직선제개헌》을 실현함으로써 식민지파쑈통치를 유지하려던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친미주구, 파쑈독재의 하수인이였던 전두

환, 로태우, 사기협잡의 왕초 리명박, 《유신》의 후예 박근혜 등 력대 보수우두머리들의 감옥행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을 일삼는다면 누구든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남조선에서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되찾기 위한 의로운 투쟁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였다.

오늘날 남조선 각지에서는 뿌리깊은 대미굴종,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나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2018년 미국의 고위정객들이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는 망언들을 늘어놓았을 때 남조선의 여러 시민단체와 인민들은 우리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주권침해이라고 강력히 단죄규탄해나섰다.

2019년 3월에도 남조선의 진보운동단체들은 반미투쟁선포대회를 열고 2차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미국의 날강도적이고 교활한 본성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을 위한 강력한 보검이며 든든한 원천이다, 남북관계발전과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개입을 철저히 막아내고 민족자주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계각층이 반미투쟁에 총궐기할것을 호소하였다.

올해 1월 18일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인 평화철도 사무처장 정용일이 《통일뉴스》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2021년을 《자주국민으로 사는 원년》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반미, 통일운동을 전개할것을 호소한것을 비롯하여 년초부터 남조선의 진보운동단체들

은 반미자주통일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한>반도운명개척의 주인이 되겠다는 의지, 그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동기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행동에 나설것이다.》

《시민들의 힘으로 자주평화통일의 새시대를 만들어가자.》…

이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에 이르는 전기간 서울과 부산, 대전, 경기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 지역에서 벌어진 반미자주대회, 반미시위행진, 반미초불집회 등 다양한 행사장들에서 울려나온 민심의 목소리이다.

《민플러스》가 전한데 의하면 민주로총 22기 중앙통일선봉대는 8월 11일부터 《미국없는 자주의 시대, 우리 힘으로》라는 기

치를 들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의 88개 단체가 결성한 《8.15대회추진위원회》는 8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광복 76주년 <한>반도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 참가한 150여명의 남조선사회 각계 인사들은 《<한>반도운명개척의 주인이 되겠다는 의지》로 행동해야 한다는데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이렇듯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민족자주를 웨치고있는것은 사대와 외세의존이 지속되고있는 남조선현실에 대한 개탄이며 외세의존을 영원히 추방하고 외세가 없는 세상, 통일된 세상을 하루빨리 안아오려는 념원의 분출이다.

그렇다.

민족자주의 정신은 민족을 강하게 만들

지만 외세의존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망치는 길이다.

이것은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험난한 투쟁속에서 우리 겨레가 찾은 진리이다.

우리 조선민족은 5천년이 넘는 력사동안 1천여회의 외래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온 당당한 자주민족이다.

자기 민족의 힘에 대한 긍지와 확신을 가지고 민족문제해결에서 자주적대를 철저히 세운다면 얼마든지 우리 겨레는 민족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 리익에 맞게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전쟁연습 중단하라》

《전쟁연습 중단하라.》

이것은 남조선의 어느 한 지역에서 일개인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웨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동족상쟁의 위협을 시시각각 당하고있는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 겨레가 가슴아프게 성토하는 분노의 웨침이다.

우리 민족은 이미 한차례의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에 사무치도록 절감하였다.

당시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 공장, 주택지구들, 력사문화유적들이 무참히 파괴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의 재난을 겪으면서 수많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생겨나고 서로 생사여부조차 모르며 오랜 세월을 살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제 누구나 바라지 않는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 피해는 지난 전쟁시기의 피해와 대비조차 할수 없는것으로 될것이다.

이러한 재난을 겪어본 우리 민족이기에 누구보다 평화를 갈망하고있으며 그 누구라 할것없이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지향하고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오랜 세월이 흐르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넘는 장구한 기간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조선반도에는 전쟁위협이 한시도 가셔진적이 없었다.

미국은 정전협정체결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

을 계속 끌어들이고 해마다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정전협정체결후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년례행사처럼 벌리고있는 군사연습들은 규모와 기간은 서로 달라도 어느것이나 다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무모한 군사적광란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지역정세의 안정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있다.

력사는 조선반도의 현 정전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 땅의 평화에 대하여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올해 3월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의 주최로 서울, 부산, 평택, 제주, 성주 등 16개 지역의 시민들이 참가하여 진행된 《<한>미련합군사훈련중단 온라인전국집중행동》에서 참가자들은 《<한>미련합군사훈련은 년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북침

전쟁연습이다. <작전계획 5015>는 대북선제공격, 북점령을 명시하고있다. 규모로 보나 잔인성으로 보나 지구상에 이런 전쟁연습은 전무후무하다. 훈련을 축소하더라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 북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엄중성을 정확히 성토하였다.

국민주권련대,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 대학생진보련합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도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에는 《방어》훈련이란 없다, 이번 합동군사연습도 《선제타격》, 《참수작전》, 《급변사태》를 가정한 북침연습, 세계최대의 전쟁연습이라고 준절히 성토하였다.

리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의장은 지난 8월 남조선 각지에서 개최된 《<한>미전쟁연습중단, <한>미일군사협력반대 8.15전국로동자대회》에 보낸 련대사에

서 이렇게 발언하였다.

《우리가 <한>미련합군사훈련을 반대해온 것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훈련이 갖고있는 적대적성격때문이였다.》

이것이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이 가지는 위험성의 하나이며 때문에 온 겨레가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외세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을 용납 못할 군사적도발행위로 락인하고 견결히 반대하면서 중지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있는것이다.

지난 7월 《한국진보련대》 상임대표는 인터네트에 올린 연설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을 지속하고 군사훈련을 계속한다면 우리 민중, 민족의 거대한 저항에 부닥치게 될것입니다.》

올해초부터 남조선의 각계층 광범한 시민사회단체들속에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

전쟁연습반대,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투쟁들은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진 지난 3월에 남조선 각지에서 세차게 고조되였다.

남조선언론이 전한데 의하면 민족작가련합이 2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전쟁연습중단하고 평화의 봄 다시 열자》라는 주제로 시랑송모임을 열었으며 5일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경기도 평택미군기지에서 오산공군기지까지 《평화의 1만보걷기》행사를 진행하고 괴뢰청와대앞에서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11일 부산민중련대가, 14일에는 국민주권련대가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폭로단죄하는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연습을 영구중단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것을 비롯하여 전쟁연습반대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였다고 한다.

《<한>미련합군사훈련중단 비상행동전》을 선포한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도 《<한>미련합군사훈련 시민분노발언대》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매일 1인시위, 선전물 4만장배포운동 등을 진행하였으며 3월 12일까지 매일 12시부터 1시간씩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본질과 위험성을 폭로하면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즉시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4월초에도 《한국대학생진보련합》은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과 전 지역에 널려있는 미군기지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미투쟁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경상남도 진보련합이 창원에서 《<한>미련합군사훈련반대 경남평화대회》를 진행한 소식, 전국철도로동조합, 전국철도지하철로동조합협의회, 평화철도, 《평화와 통일을 여

는 사람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9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남북철도잇기 <한>반도평화대행진추진위원회》가 부산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행진의 출발을 선언한 소식, 서울뿐만아니라 남조선 각지의 수십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반미투쟁을 전개한 소식 등을 남조선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이 각종 행사와 집회들에서 참가자들은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련합군사훈련 영구중단》, 《침략전쟁연습 이제 그만》,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나가라》, 《총대신 평화를 들자!》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연습중단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삼복의 찌는듯 한 무더위속에서도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성원들은 청와대와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항의서한보내기, 1인시

위, 《성조기》찢기를 비롯한 다양한 《한》미합동군사연습반대투쟁을 고조시켰다.

《한국진보련대》, 국민주권련대, 평화통일시민행동, 민주로총, 《한국로총》 등 시민운동단체들의 대표들은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청와대와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1인기자회견을 열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 《평양진격작전》, 《참수작전》과 같은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미친짓이라고 하면서 각계층 단체들과 주민들이 온 겨레에게 큰 희망을 안겨준 북남공동선언리행과 합동군사연습중단을 위한 투쟁에 궐기해나설것을 호소하였다.

8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진보련대 등으로 구성된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추진위원회》는 서울과 각지에서 평화대행진을 진

행하였다.

단체는 서울의 독립문, 룡산, 종로 등 일대에서 《<한>미련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대북적대정책 폐기하라!》고 적힌 손구호를 들고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 1인시위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역들에서도 광범히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진보시민운동단체들뿐아니라 로동운동단체들, 해외의 수백개의 단체와 해외동포들도 참가하였다.

14일 민주로총은 서울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민주로총 성원 200여명은 서울지하철도 서대문역을 중심으로 《<한>미전쟁연습중단》이라는 구호가 적힌 파란색풍선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으로 8.15로동자대

회를 열고 전쟁연습예산을 삭감하고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온라인으로 개회된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에서 해외를 대표하여 손형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 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민족은 광복된 그날로부터 아직도 분단의 고통속에서 살고있고 조국반도는 여전히 대결과 전쟁위험에 처해있다.》고 하면서 남조선미국합동군사훈련강행에 대한 해외동포들의 분노와 규탄을 전하였다.

8월 24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가 서울 미국대사관앞에서 《<한>미군사연습중단촉구 공동행동》을 진행하면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영구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한다.

발언자들은 이 행동에서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 각계층의 절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침공하는 전쟁연습을 벌리고있다고 단죄하면서 미국은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지 말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며 당장 제땅으로 돌아가라고 성토하였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것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북과 남, 해외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강렬한 요구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평화는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말끔히 드러낼 때만이 비로소 이룩되게 되며 그때라야 우리 겨레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수 있고 후손만대의 번영도 이룩할수 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

한 투쟁은 바로 민족의 생존터전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안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　　　*

《민족운명개척의 주인이 되겠다는 의지로 행동하자.》,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자.》, 《동족을 적으로 압살하려는 전쟁연습을 용납할수 없다.》…

이것은 우리 겨레 누구나 투철한 민족자주의식을 지니고 사대와 외세의존을 반대하

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는 진정한 애국의 웨침이다.

민족의 운명과 전도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민심의 지향과 요구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 할것없이 이 력사의 웨침앞에 자신을 세워보아야 할것이다.

민심의 목소리

집 필 오 보 람
장 정 채 대 성
교 정 주 설 미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0(2021)년 9월 20일
발 행 주체110(2021)년 9월 23일

ㄱ-1510ㄷ